

## 4급수 오명 탈출 하나...영산강 '4단계 수질개선' 시동

전남도·9개 시·군, 내년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 앞두고 저감대책 수립 나서

1988년~2016년까지 1조 8000여 억원 쏟아부어...4대강까지 3조원 넘게 투입

국내 4대강 중 유일하게 '4급수' 단계까지 수질이 악화된 영산강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수질오염 총량제를 통해 건강할 하천으로 되돌아 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전남도와 영

산강 수계 9개 시·군은 올 연말까지 수질 오염물질 저감 대책 등을 담은 '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2021~2030년)' 수립에 나선다.

대상 지자체는 영산강 수계를 품고 있는 목포시,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영광군,

영암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등 9개 시·군이며 목표수질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을 정해야 된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수계 전체의 오염총량 관리를 위해 하·폐수처리장 시설을 고도화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확충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게 된다.

영산강 수질은 상·중·하류가 극명하게 갈린다. 201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상류권인 담양 지역의 평균 BOD(생화학적 산소 요구량)는 1.5~2.0mg/l로 1~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 지역을 통과하면서 영산강

수질은 급격히 떨어진다. 수량의 70%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강으로 유입하면서 영산강 수질 개선을 가로막고있기 때문이다. 광주천과 만나는 광주 2지점의 수질은 BOD가 4~5mg/l를 넘나들며 3~4급수에 머물고 있다. 올해 1월엔 무려 BOD가 9.4mg/l까지 치솟는 등 갈수록 수질은 더욱 악화된다.

영산강 중류권인 나주, 영산포권 수계도 평균 BOD가 4~5mg/l로 사실상 4급수로 분류되고 있고, 그나마 하류인 무안, 함평 지점은 BOD가 3~4mg/l로 중류권 보다는 수질이 양호한 편이다.

전남도와 영산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의 수질 개선 노력에 힘입어 10여년 새 5급수 이하였던 수질이 4급수로 향상됐지만 영산강 수질 개선은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한 해만

하수처리장 설치 등에 1500억원을 투입했고, 1988~2016년까지 1조 8000여 억원을 쏟아 부었다. 여기에 4대강 사업으로 3조원을 넘게 투입했지만 영산강 수질은 3급수 단계에서 더 이상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영산강 수질 저하는 광주권의 오염원 유입도 문제지만 상류에 장성호, 담양호, 광주호 등의 댐이 들어선 이후 유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주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강 주변에 농약, 퇴비,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는 농경지가 타 지역 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비점오염원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전남도와 9개 시·군이 내년부터 10년 간 추진하는 수질오염총량제를 통해 저감 목표량을 얼마만큼 실현하느냐에 따라 영산강 수질 개선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AI로봇으로 체온 측정

광주 서구 광주시청 청사 1층 로비에서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인공지능(AI) 로봇 시연회가 열린 가운데 개발업체 관계자가 기능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 로봇은 주변의 사람을 인식, 체온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마스크 착용 방법을 안내한다.

### '코로나 충격' 광주·전남 중소기업, 경기전망 또 하락

전월비 2.9p·전년 동월비 4.8p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광주·전남중소기업들의 경기전망이 또 기쁘지 않게 떨어졌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8월 중소기업 연합 전망 건강도 지수(SBHI)가 전월(74.9) 대비 2.9포인트, 전년 동월(76.8) 대비로는 4.8포인트 하락한 72.0으로 나타났다.

SBHI는 100 이상이면 기업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 업체가 많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연속 기준치를 밑도는 전망 지수는 최근 정부의 '한국판 뉴딜' 등 경기부양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경기회복을 여전히 어렵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과 확진자 발생도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 심리를 가중 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광주는 전월(76.2)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71.7로, 전남은 전월(72.5)과 동일한 72.5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전월(65.3) 대비 7.3포인트 상승한 72.6으로 나타나 회복세를

보인 반면, 비제조업은 전월(82.4) 대비 10.9포인트 낮은 71.5로 대폭 하락했다.

항목별로는 내수판매 전망(73.3→72.0), 경상이의 전망(68.9→67.0), 자금사정 전망(68.1→66.0)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수출 전망(44.4→67.4)은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전월부터 소폭 반등한 후 다시 23.0포인트 상승해 암울했던 상황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고용수준 전망(108.3→105.8)은 전월대비 2.5포인트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수요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경영 애로(복수응답)는 내수부진(78.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업체간 과당경쟁(43.5%), 인건비 상승(39.8%), 판매대금 회수지연(32.5%), 자금조달 곤란(27.2%)이 뒤를 이었다.

6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평균가동률은 전월대비 2.1%포인트 상승한 66.4%로 작년 11월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한 후 모처럼 반등했다.

지역별로는 광주는 전월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64.8%, 전남은 전월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68.8% 가동률을 보였다.

서선옥 기자

### 조선대병원 코로나 검사 확대

평일 4회·주말 3회...일100여건

조선대학교병원이 광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진단검사를 확대한다.

조선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신속하게 판별해 확산세를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 검사 횟수를 늘려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선대병원은 감염 초기 코로나19 감염자를 신속하게 구분하기 위해 '실시간 유전자 증폭검사(RT-PCR)'를 이용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검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진 특정 유전자를 수만 배로 증폭시켜 양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숙련된 임상병리사가 검사를 시행하고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한다.

최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급증함에 따라 조선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평일 3회, 주말 2회 실시하던 진단검사를 평일 4회, 주말 3회로 확대했다. 또 병원 입원환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수술 환자에 대해 코로나19 수술 전 검사를 함께 시행하며 일 평균 약 100여건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강성호 진단검사의학과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하계휴가로 다음호 10일자 발행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때입니다. 노사민정이 손을 잡고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냅시다.



- 기업은 고용유지에 힘쓰고
- 근로자는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 정부는 일자리 안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불안·노사갈등 노동문제로 애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중재를 해드립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